



어느덧 무더운 여름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장마도 잠깐 지나가고 이젠 태풍들이
들이 닥칠 것 같으네요. 세월이 정말 빠름을 느끼며 어느덧 8 월도 중순을 넘어 가고
있습니다. 건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들이
다들 좋지 않아서 대부분이 다 치료들을 받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.

사장님께서도 일주일에 두번씩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기침이
멈추질 않고 있습니다. 좀 괜찮아 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하시고
계십니다.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다들 치료들을 받고 있어요. 그런대로 열심히 잘
감당하고 있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.

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며 일들을 잘하고 있고 식품공장에서 제과, 빵은 잘
만들어 판매도 하고 노인들 봉양도 잘 하고 있습니다. 원장님께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
계십니다. 계속하여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. 윗쪽의 소식은 아직도 좀 힘든

상황들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지요. 선ㄸ 동산에서는 계속하여 좋은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나누고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지요.

실로암관에서의 삶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한 번씩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계속하여 열심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며 잘 달려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하여 함께 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

멀리서 뽀릴리 뽀릴리 소리를 울립니다.

8.2025 이진세/ 옥소리 드림